

1910~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한글 편지: 김장연씨 일가의 편지를 중심으로

김양진* · 이희영**

<목 차>

1. 머리말
2. 편지의 성립
 - 2.1 이주의 과정
 - 2.2 편지 속 인물관계
3. 편지들
 - 3.1 어머니의 편지
 - 3.2 김장권의 편지
 - 3.3 김성국의 편지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초기 미주 지역 이주민인 김장연 씨에게 고국의 가족들이 1914년부터 1920년까지 보낸 일련의 한글 편지들을 판독하고 이를 통하여 20세기 초반 미주 지역 이민사의 편린과 고국에 남겨진 김장연 씨 일가의 사연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편지들은 한반도에서 미주 지역으로 보내진 초기 편지들로 이를 통해 김장연 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미주 지역에서의 이주민의 생활의 편린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헌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제 초기 일반인의 삶과 언어 생활을

* 경희대학교

** 한성대학교

엿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편지 자료들을 통해서 수원 지역 일대의 실제 지명과 다양한 언어 생활, 미주 지역 이민들과의 교류 내용 등을 알 수 있어서 20세기 초반의 이민사에서 중요한 한글 필사자료 및 언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밖에 편지 속 등장인물들의 행적들을 〈공립신보〉, 〈신한민보〉 등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감리교단 수원지역 순행 전도사의 활동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이주, 한글편지, 한글 필사자료, 일제 강점기, 수원 지역 지명, 이민사, 〈공립신보〉, 〈신한민보〉, 감리교, 순행 전도사,

1. 머리말

한국인의 미주 지역 이민이 110주년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미주 지역으로의 이민은 흔히 하와이 이주(1903~1905)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와이 이주 이전에도 유학이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 등으로 미주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개인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서재필이나 변수, 서광범 등의 이주가 정치적 망명과 유학의 중간적 형태였다면¹⁾ 인삼장수나 금광 인부로 미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미주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이고 그밖에도 종교적 인연으로 미주 지역에 정착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²⁾

1)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 1883년부터 1905년까지 20여년간 약 60명 미만의 한국인이 당시의 대한제국에서 미국으로 망명 혹은 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송정원일기>(高宗 30年 1月 21日·26日과 11月 9日 條)에 따르면, 1893년 개척된 미국의 시카고 컬럼비아 박람회에 조선에서도 고종이 정경원(鄭敬源)을 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하였는데 그 당시 그들을 도와 6개월간을 함께 한 현지에서 고용된 박용규와 서병규라는 한국인이 있었다고 한다. 또 하와이로의 공식적 이민(1903.1.) 이전에도 하와이에 1901년 이전에 5명, 1902년에 12명의 한인이 있었다고 한다. 웨인 패터슨의 <하와이로 가는 길>에 서는 “...하와이로의 체계적 이민을 조직하려는 노력이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같은 기간에 몇 명의 한국인들이 자진해서 하와이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인 학생들과 외교관들인데, 1883년 이후 미국 본토로 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렀던 것이다. 그들 중에 서재필, 서광범, 유길준, 윤치호, 안창호, 민영환, 김규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인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상륙한 기록은 1896년 5월에 상륙한 '금'이라는 성을 가진 두 명인데, 그들은 직업을 '상인'이라고 기록했다. 그들은 아마 중국에서 온 인삼 장사였는지도 모르며, '김'이라는 성의 다

이 글에서는 1899년 고향인 수원을 떠나 1904년 하와이로 이주하였다가 1905년경 미주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한 김장연 씨에게 고국의 가족들이 1914년부터 1920년까지 보낸 일련의 편지(이하 <편지>로 부른다)를 판독하고 이를 통하여 김장연 씨의 이주사에 대한 편린과 고국에 남겨진 김장연 씨 일가의 사연을 알아보고자 한다.³⁾

<편지>는 봉투와 편지가 각각 따로 분리된 채 약 30여통의 편지를 대략 1914~1920년까지 약 7~8년 동안 주고받은 것인데, 김장연 씨의 외손녀 송 레슬리 씨가 가지고 있다가 현재 한글박물관에 기증유물로 소장되어 있다. <편지>의 전 소유자인 송 레슬리 씨는 김장연 씨의 둘째 딸 김에바 씨의 장녀로 한인 3세인데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편지를 간직해 왔을 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송 레슬리 씨가 집안에서 전해 들은 내용 가운데 외조부에 대한 내용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어서 가지고 있는 편지의 내용 간 연결을 짐작하거나 김장연 씨의 이민 과정을 추적하는 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른 표현인지도 모른다. 그 뒤를 이은 한국 상인은 '박(Pack 혹은 Pak. 나이 38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년 뒤인 1898년에 도착했다. 1899년에 성(姓)이 감(29세), 감(32세), 감(51세), 정(22세)이라는 네 명의 한국 식료품상인들(grocers)들이 홍콩으로부터 도착했다. 그리고 2주 뒤 추(Tsu. 나이 51세), 장(36세), 진(Chin. 20세)이라는 세 명의 약장사들이 도착했다. 감(31세)과 레웅(Leong. 34세)이라는 이름의 두 명의 한국인이 뉴창(만주 선양 근처)으로부터 1900년에 도착했고, 나흘 뒤 홍콩으로부터 흥(Hung, 31세), 또 다른 흥(Hung, 45세), 진(Chin, 34세)이라는 이름의 세 명의 한국인 약장사들이 도착했다. '유'라는 성의 한국인이 1901년 1월에 도착했고, 1900년 7월 1일과 1901년 6월 30일 사이에 네 명의 한국인이 도착했다. 그리고 1901년 7월 1일과 1902년 6월 30일 사이에 12명의 한국인 남자들이 도착했다. 이와 같이 1896~1902년까지, 6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이 인삼 장사인 약 20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하였는데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미주 혹은 하와이를 경유하게 되었는지 또 이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이나 하와이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 3) 이 편지들은 한국에서 미주 지역으로 보내진 한글 편지의 초기 유물로 매우 중요한 자료들로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에는 1914~1920년 식민지 한반도의 수원 지역에서, 환갑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막내 동생이 27살의 노총각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며 고생을 하는 이야기를 기본 줄거리로 해서 멀리 북간도를 떠돌다 돌아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둘째 동생의 이야기라든지, 당시 하와이 이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국에서 감리교 전도를 위해 파견된 선교사의 순행전도사가 된 사촌형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3월 24일 한글박물관에서는 이 자료의 역사성과 의의를 인정하여 박물관에 비치될 한글 기증 유물 자료로 기증을 받았고 관련 내용이 KBS 2015년 4월 22일 9시 뉴스에서 방영되었다.(100년 만에 돌아온 '미국 이민 1세대의 편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61819&ref=A)

따라서 먼저 이들 <편지>의 내용에 따라 그 순서를 바로잡아 각 편지와 봉투의 연결관계를 바로잡고 편지 내용을 통해 확인된 김장연 씨의 가족 관계와 고국에 남겨진 가족들의 거주 및 생활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편지> 속의 30여 통의 편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몇 통의 내용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판독과 간략한 주석을 덧붙인다. <편지>의 전체적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아마도 김장연 씨의 미주 이주는 종교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편지>의 내용 가운데 언급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편지의 성립

아래에서 <편지>가 성립하게 된 배경을 김장연 씨 일가의 이주 과정으로부터 <편지> 속 인물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이주의 과정

LA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김장연 씨의 묘비명에는 고 김장연(金長淵, Chang Yung Kim) 씨가 1881년 태어나서 1943년 작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 1〉 고 김장연 씨의 묘비명



김장연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언론지였던 <신한민보>에 이와 관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올라 있다.

<신한민보> 1943년 12월 9일 2면 3단

지방통신

김장연씨의 별세와 안장

다년 라성에 직류하던 김장연 씨는 十二月 六일에 별세하니 향년이 六十三이오 원적은 경기도 남양군 이며 유족은 二子二녀가 있어 장의를 유감없이 준비하야 동 九일 상오 十一시에 피어스 형제 장의소에서 라성 한인 감리교회 목사 장귀형씨의 주례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다수 친우 호상리에 으로스데일 미장지에 안장하는 썬에 유족이 잇통 망극하얏고 친척 친우가 다 갖치 이도를 표하얏다

씨는 직미 한인 기척자 一인이오 거의 六년 동안 반신불수증으로 인하여 병석에 누어 잇었고 자녀들이 구조를 갖치 하는 가운데 더욱 장녀 으로스 녀사가 정성을 다 함으로서 릴리 자 로가 모다 그 괴이한 효성을 칭찬 하얏스니 이와 갖치 착한 형실은 직미 한인 제二세의 모범을 위하여 장려할 만한 일이다

국민회 중아 상무부에서는 총무 김병연씨가 호상하고 화환을 부의하야 조례를 표하얏다

위 기록에서 설명하였듯이 김장연 씨는 재미 한인 개척자의 1인으로 경기도 남양군이 원적이며 1943년 12월 6일 향년 63세(1881년생)에 슬하에 2남2녀를 남기고 약 6년간 반신불수증으로 병석에 누워 있다가 졸하였다.

김장연 씨의 미국 이민 시기에 대해서는 U.S.Census를 인용할 수 있는데 자료마다 이민 시기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혼동스럽다. U.S. Census 1910년의 자료에서는 C.Y.Kim과 S.S.Kim이 1906년에 이민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920년 자료에는 C.Y.Kim는 1899년, S.S.Kim은 1904년에 이민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1930년 자료에서는 C.Y.Kim과 3자녀가 1905년에 미국에 이민 왔다고 되어 있어서 기록상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U.S. Census 1940년 자료에는 59세인 C.Y.Kim가 큰 딸과 함께 살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확실한 것은 초기 미주 지역 이주민들의 공식적 언론지였던

<공립신보>의 다음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공립신보 1906년 01월08일 4면 3단

新入會員 상항디방회에서 청원을 외호야 박제순 김경일 박낙범 김우제 김
응규 림성오 김장연 서정우 합팔씨를 가부로 입회식했더라

이에 따르면 김장연 씨가 1905년 겨울 무렵에 미주 지역으로 이민을 왔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절차는 1906년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1910년의 Census 자료와 1930년의 Census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1920년 자료의 신빙성 문제인데 이는 아마도 김장연 씨(C.Y.Kim)와 최심성 씨(미국명, S.S.Kim)가 고향을 떠난 시점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김장연 씨는 1899년에 고향인 수원(남양) 지역을 떠나 미주 지역에 정착했고 최심성 씨는 1904년에 고향을 떠나 미주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들은 김장연 씨 일가의 편지 내용을 통해 사실 여부를 좀더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2. 편지 속 인물 관계

고 김장연 씨가 고국에서 받은 편지 30여통의 주된 등장인물은 김장연 씨 본인과 김장연 씨의 아내(S.S.Kim, 한국식 이름은 최심성, 편지 속에서는 주로 김장연 씨의 아내로서 며느리, 형수, 아주머님 등으로 호칭되었다), 아버지(성명 미상), 김장권(김장연의 막내 동생), 김장원(김장연의 둘째 동생), 김병권(김장연의 사촌형), 김성국(김장연의 사촌형), 김성식(김장연의 숙부) 등이다. 이들의 기본 인적 사항과 편지와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편지 속 등장인물과 편지 내용과의 관련성

- ㄱ. 김장연(金長連/金長淵, Chang Yun Kim) : 편지를 받은 당사자. Ltr 17-2, 23B, 29는 본인이 쓴 편지. Ltr 17-2, 23B는 모친이 아들 김장연 씨가 보내온 편지 뒷면에 답신을 써서 남게 된 내용이고 Ltr 29는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연습 삼아 써본 글이 남겨진 것인 듯. 1881년 2월 24일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나이 19세인 1899년에 고향을 떠나서 1903~1904년 경 미국으로 이민, 하와이를 거쳐서 남캘리포니아 주에 정착했다가 1943년에 LA에서 사망하였다.(만 62세)
- ㄴ. 김심성(Sim Sung Kim, 결혼하기 전의 성은 최) - 1888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1904년에 미국으로 이민. 미국에서 김장연(金長連/金長淵)과 결혼. 1920년에 둘째 아들을 낳다가 도산증으로 사망.(만 32세)
- ㄷ. 어머니 : 1855년 7월생. 27세(1881년)에 김장연을 낳고 장원(뒤에 증권으로 개명), 장권(1892년생) 형제를 낳음. 장남과 차남이 타 지역으로 떠나 막내 김장권과 함께 거주함. 38세에 낳은 막내 김장권에 대한 염려가 막심함. Ltr 3A, 3B, 5A, 7, 17-1, 23A를 보냄.
- ㄹ. 아버지 : 성명 및 생년 미상. 1903년 졸.
- ㄹ. 김장권(金長權) : 김장연의 막내 동생. 셋째. 1891년생. 9세에 형과 이별. 13세에 아버지 별세.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음. 1917년 11월 11일 윤○○과 혼인. 아내 윤○○는 경기도 수원군 오미(오산) 썰납재 윤씨 집안 규수(1900년생. 혼인 당시 17세). 장인은 윤낙서. 처남은 윤명준. 처음에는 경기도 수원군 양상면 용포리 당의동 707번지에 거주하다가 혼인을 즈음하여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 용포리 당산 79번지로 이사. 1918년경 처가 동네로 이사함. 1918년 딸을 낳음. Ltr 2+32A, 5B, 6, 8, 9, 15, 18, 20+16, 21, 24, 27, 31, 32B 등 김장연 씨가 받은 편지의 절반 정도가 막내인 김장권이 보낸 것임.
- ㄹ. 김장원 : 김장연의 동생. 둘째. 1880년대 초반에 태어남.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1918년경 고향에 정착함. 나중에 김중권(金仲權)으로 개명. 1918년 경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 사는 전주 이씨 가문의 이순과 혼인, 1919년 7월 생남하였으나 죽음. 京畿道 始興

郡 秀岩面 楊上里⁴⁾ 거주. Ltr 12-2, 13, 19, 22, 33AB이 둘째 김장원이 보낸 것인데 이 가운데 12-2, 13, 22는 김장원이라는 이름으로, 19, 33AB는 김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것임.⁵⁾

- 入. 김병권 : 김장연의 사촌형. 1914~1915년 2년간 경기 충청 지역 감리 교회 순행 전도사를 맡음. 김장연에게서 시계 선물을 받고 자전거 기증을 부탁함. 경기도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 하동 33-2(이전 주소명 글판리 상교재) 번지 거주. Ltr 1, 26, 30을 보냄.
- . 김성국 : 김장연의 사촌 형. 포와(하와이)에서 김장연과 만났던 듯. 1918년경에는 둘째 김장원과 함께 거주하였던 듯. 김장연에게 막내 동생 장권의 혼사 도와준 것을 치하하고 둘째 김장원을 도와줄 것을 청하는 편지 Ltr 12-1을 보냄. Ltr 12-1은 Ltr 12-2와 함께 보내진 것.
- ㅈ. 김성식 : 김장연 형제의 숙부. 피미 할아버지와 함께 김장권의 혼사를 주선함. 1916년 당시 수원군 동탄면 신리 적촌(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거주. Ltr 33C를 보냄.

이상의 인물 관계를 고려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4)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조선시대의 양상리(楊上里)에서 양상동이 되었다. 양상동 일대는 피꼬리가 버드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사는 형국이므로 마을 하천 독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버들촌으로 불렸다. 양상리는 버들촌 웃말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웃버대[上楊垔]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안산군 군내면 양상리와 양하리(楊下里)였고, 1914년 양상리와 양하리가 통합되어 시흥군 수암면(秀岩面) 양상리가 되었다. 1986년 안산시 양상동이 되어 행정동인 월피동 관할이 되었다가 2002년 구제(區制)를 실시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이 상록구 양상동이 되었다.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12월 16일자 기사에 “京畿道 始興郡 秀岩面에 監理會 物旺里敎會가 설립되다.”라는 기록[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일대는 일찍부터 개신교(특히 감리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 5) 1920년 5월 17일자로 보낸 Ltr 13의 추신(追伸)에서 추후 자신의 이름을 金佑權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대서소에서 金仲權을 金佑權으로 잘못 판독하여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이 무렵(1920년 5월) 김장원이 金仲權으로 개명한 듯한데 아들의 죽음과 시기적으로 연관이 있을 듯하다.

〈표 1〉 편지 내용 분석

Ltr	발신자	관계	발신일	日順	주소	내용
1	김병권	사촌형	19150520 (주강생)	4-1	경기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 하동 33-2(이전 글판리 상교재)	헤어진지 십유여년. 수원지방 순행전도사로 남양, 안산, 수원, 광주, 여주, 이천, 음죽, 음성, 충주, 제천, 청풍 등으로 전도다님. 우리나라 교회 지방 구분 설명. 전도를 위해 시계 부탁. 노모를 위해 장권을 도와준 것을 치하. 3년전 이곳으로 이사함. 이곳은 함군, 함면, 함동이 되었고 염천은 아주 절단이 남.
2+32A	김장권	막내	19140401 (갑인)	1		지난 2년간 편지 없었음. 생활의 어려움 토로, 23세. 돈부탁.(1912.3.24.에 장연이 편지를 보냈었음)
3A	모	모친	19141220	2		큰머느리(장연 처) 병세 안부. 막내 장권의 혼처 걱정.
3B	모	모친	(19150520)	4-2		장연이 보낸 돈과 편지를 받고 회신. 큰머느리 병세 재차 문의
5A	모	모친	음 下 25	3-2 6)		떠난지 10여년. 집을 사겠다는 장권의 글에 대한 장연의 답글을 받고 쓴 글.
5B	김장권	막내	19141225 (음력)	3-1		장연의 답글에 대한 인사. 혼사를 위해 집 구매를 도와줄 것을 청함.(※편지 뒷부분 일부 찢어짐.(아마 주소)
6	김장권	막내	19150530 (乙卯)	6-1		1915년 정월에 보낸 쌀값 50원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음력 5월 24일 받고 25일에 찾음. 7월 어머니 환갑. 증형은 러시아 지명에...
7	모	모친	(19150530) ⁷⁾	6-2		떠난 지 수십년.(십수년의 잘못?) 보고싶은 간절한 마음. 장권 걱정. 머느리 머리 다리를 구해서 보내줬음.
8	김장권	막내	19170618 (대정 5년)	13		성식삼촌, 피미 할아버님이 전도 중에 장권의 배필을 구함. 8월에 예장, 9월에 혼인하고자 함. 집을 임의로 계약하였음에 대한 사죄와 함께 돈을 부탁함. 부탁받은 다리는 다음에..
9	김장권	막내	19171217 (음력)	17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 용포리 당산 79번지	음력 12월 11일에 혼례식 치름. 신부 청찬. 혼사비용 60원, 예물 감사. 집값 원조 부탁. 사진 못 보낸 사죄.
12-1	김성국	친척형	19180214 (양력)	18-1		포와(하와이)에서 만났던 것 언급. 장원과 함께 있음. 장원의 혼인을 도와달라 청함.
12-2	김장원	둘째	19180214 (양력)	18-2		수십년 격조함. 장권에 대한 섭섭함. 혼인에 도움을 청함.
13	김장원	둘째	19200517	20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동 42번지	지난해(1919.11.18.밤8시) 어머니 별세. 작년 7월 생남하였으나 실패함. 장연이 보내온 돈 15원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름. 장권은 당미집을 팔고 처가 동네로 이사함. 장권의 딸이 3살임. 사진 곧 보내겠음. ⁸⁾
15	김장권	막내	19150523 (주강생)	5		혼처를 정함. 배필은 17세. 집 구매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

150 국제어문 65집

16+20	김장권	막내	19160124 (병진)	9		혼처를 구하기 위해 한우물 김문표의 집을 사겠다고 한 데 대해 사죄. 4월에 매매. 집 값 130원.
17-1	모	모친		5-2 9)		동생 장권의 어려움 호소.
17-2	김장연	본인	19150202	5-3 10)		장권 혼사에 쓰도록 지화 백원 부침.
18	김장권	막내	19150725 (음력)	7	경기도 수원군 양상면 용포리 당미동 707	어머님 환갑에 쓸 비용을 부친 데 대한 감사. 형수 염려. 머리 부침. 중형 언급.
19	김중권	둘째	19201219 (경신)	24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	10월 편지에 대한 답신이 없어서 다시 보냄. 장권에게만 편지한 것에 대한 섭섭함.
21	김장권	막내	19170926 (양력)	15		혼사비용 60원 중 59원26전 찾음. 예물(시계, 반지), 병권 선물(안경)에 대한 세금 8월 59전. 집값 140원 중 계약금 30원. 5월에 잔금 치르기로 하고 200원 대출하였으나 이자만 매달 5원씩 내고 있음. 집 명의로는 김장연으로 함. 진명 소송비 10원.
22	김장원	둘째	19170415 (정사/음력)	12		2월 편지에 답신 없어 섭섭함. 큰 나이 40에 장가 못 감. 도움 요청.
23A	모	모친	19170825 (양력)	14- 11)		떠난 지 10여년. 장권 혼사를 도와준 것 치하. 집값 도와줄 것 부탁
23B	김장연	본인	19170730 (양력)	14- 2		장권 혼사 비용 찾은 것에 안도. 주소를 다시 보내주시고 돈을 더 부치겠음. 돈은 병권 주소로 보냄.
24	김장권	막내	19201207 (주후)	23		그동안의 어려움 토로. 처남 윤명준의 보증으로 178원대출. 어머님 소장 음력 11월 28일. 중형에게 다녀옴.
26	김병권	사촌형	19151231	8		신년 새해 인사. 제수씨 병환에 대한 걱정. 어머님 생신(환갑)에 쓸 돈 부친 것 치하. 전도 중 장연의 효행과 우의에 대한 치하를 많이 함을 강조.
27	김장권	막내	19200510 (주후)	19	경기도 수원군 동탄면 청계리동	영문 주소가 잘못되어 편지가 반송되어 지난 4-5년간 연락이 안 되었음. 금년 5월 2일 보낸 편지를 받고 답신함. 어머님 이장 비용으로 보낸 15원을 찾음. 중권의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양상리동. 사진(두건을 쓰고 찍음)을 보냄.('죄인' 표현 사용.)
29	김장연	본인	19171023 12)	16		돈 180원 부침.
30	김병권	사촌형	19160930	11		편지와 안경을 보내준 것 감사. 장권의 혼인 흥정을 하러 서울에 다녀옴. 규수가에 납채 보냈음. 혼례식은 11월 11일 예정. 큰아이 학조(19세) 12월 20일에 성혼함. 전년 약조한 자행거 부탁.

31	김장권	막내	19201108	22	자신의 신세 한탄. 손가락 상처를 병원에서 한달간 치료. 돈 보내주어 빚을 갚게 해 준 데 감사. 중형에게 돈을 보내준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함. 남은 빚을 갚게 한번 더 도와주면 추후 조카들 학비로 얼마라도 보태겠음.
32B	김장권	막내	19150520	4-2	보내신 돈이 도착하지 않았음. 형수님 부탁한 머리 다리는 적합한 것을 못 구함. 색과 맞는 것을 찾는 중.
33AB	김중권	둘째	19201007	21	장연의 편지를 받고 답신. 보냈다는 지화 10환이 오지 않았음. 처가는 양상리 전주이씨. 사진도 장권네만 보내고 돈이 없어서 찍지 못함.
33C	김성식	숙부	19160528	10	본국에 돌아와서 수원 동탄면 신리 적촌에 머무는 중. 장권이 이곳 셀납재 윤씨가 규수(17세)와 정혼하였으나 장권의 행세가 곤궁하니 재정을 도와주기를 부탁함.

<표 1>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편지>의 형식적 관계를 재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ㄱ. Ltr 2와 Ltr 32B는 같은 편지가 나누어진 것이다.
 ㄴ. Ltr 16과 Ltr 20 역시 같은 편지가 나누어진 것이다.
- (3) ㄱ. Ltr 1, 3B, 32B는 같은 날(1915.5.20) 보내진 편지이다.
 ㄴ. Ltr 5A과 Ltr 5B는 같은 날(1914.12.25.) 보내진 편지이다.
 ㄷ. Ltr 6과 Ltr 7은 같은 날(1915.5.30.) 보내진 편지이다.
 ㄹ. Ltr 12-1과 Ltr 12-2는 같은 날(1918.2.14.) 보내진 편지이다.
- (4) ㄱ. Ltr 17-1은 Ltr 17-2의 뒷면에 써서 보낸 편지이다.¹³⁾
 ㄴ. Ltr 23A(1917.8.25.)은 Ltr 23B(1917.7.30.)의 뒷면에 써서 보낸 편지이다.

6) 5B에 딸린 편지

- 7) 6에 딸린 글인 듯. 날짜 없음. 1915년 5월 30일로 추정됨.
- 8) 추후 金佑權으로 보내달라함. 대서소에서 金仲權을 잘못 쓴 듯.
- 9) 장연이 보낸 1915.2.2일자 편지 뒷면에 쓴 것.
- 10) Ltr 6과 50원 받은 부분과 관련됨.
- 11) 23B의 뒷면에 작성된 글.
- 12) 연도 미상. 정황상 1917년으로 추정함.
- 13) Ltr 17-2는 1915.2.2.에 보내진 편지이므로 Ltr 17-1은 1915.2.2.이후에 보내진 편지이겠는데 내용상 Ltr 15(1915.5.23.)과 함께 보내진 편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편지들 간의 관계와 <표 1>의 편지 내용을 다시 각 편지가 보낸 시간 순서에 따라 재조정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을 읽어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편지 봉투의 소인과 확인하여 원 편지와 편지봉투를 연결시킬 수 있다.

- (5) ㄱ. Ltr 2+32A(1914.4.1.) : 김장권이 보낸 편지. 김장연이 1912.3.24.에 고국으로 보낸 편지 이후 2년간 서로 서신 왕래가 없었다가 이 편지로부터 다시 연락이 이루어짐.
- ㄴ. Ltr 3A(1914.12.20.)로부터 Ltr 5A, 5B(1914.12.25.), Ltr 1, 3B, 32B(1915.5.20.), Ltr 15, 17-1(1915.5.23.), Ltr 6, 7(1915.5.30.), Ltr 16+20(1916.1.24.), Ltr 33C(1916.5.28.), Ltr 30(1916.9.30.) :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장권(1914년 23세)의 혼인과 관련하여 김장권 본인을 비롯해서 어머니와 사촌형(김병권), 숙부(김성식) 등이 경제적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 이 중간에 어머니 환갑(1915.7.)이 있어서 Ltr 18(1915.7.25.)과 Ltr 26(1915.12.31.)에는 어머니 환갑에 돈을 보낸 것에 대한 인사를 담고 있다. 장권의 혼인은 본래 1916.11.11.에 치르기로 하였으나 실제 혼인은 그로부터 1년 뒤인 1917.12.11(음력)에 치러졌다. 예물 마련과 혼인에 앞서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사정은 Ltr 8(1917.6.18.), Ltr 23A(1917.8.25.), Ltr 9(1917.12.17.)에서 자세히 확인된다.
- ㄷ. Ltr 22(1917.4.15.), Ltr 11-1, 11-2(1918.2.17.) : 둘째 김장원과 관련한 편지. 막내인 김장권만 도와주지 말고 역시 미혼이고 오랜 방랑에서 돌아온 둘째 김장원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부탁하는 내용.
- ㄹ. Ltr 27(1920.5.10.), Ltr 13(1920.5.17.), Ltr 33AB(1920.10.7.), Ltr 22(1920.11.8.), Ltr 24(1920.12.7.), Ltr 19(1920.12.19.) : Ltr 27(1920.5.10.)은 Ltr 9(1917.12.17.) 이후 오랫동안 편지하지 못한 것이 영문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는 변명과 지난해 겨울(1919.11.18.)에 어머니가 작고하셨다는 내용과 보내온 이장 비

용 15원을 받았고 둘째형의 현황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막내 장권의 편지이고 Ltr 13(1920.5.17.)은 어머님 별세를 알리고 보내온 장례 비용 15원으로 장례를 치렀고 장권과 자신의 현황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김장권이 보낸 Ltr 22(1920.11.8.)과 Ltr 24(1920.12.7.)과 김장원(=김중권)이 보낸 Ltr 33AB(1920.10.7.)과 Ltr 19(1920.12.19.)는 자신들의 이사와 사업 실패, 혼인 생활 등의 내용을 형인 장연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역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김장연 씨가 고국에서 받은 약 30여통의 편지가 막내인 김장권의 혼인으로부터 어머님의 별세, 둘째인 김장원의 생활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였으나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는 이러한 개인사적 측면 이외에도 한편으로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일제하에서의 생활이 갖는 경제적 어려움을 단면을 상세히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기독교 가정의 생활상이나 포교 과정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 시기의 경제사적, 종교사적 혹은 사회사적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 있는 글 두어 편을 소개하여 현대역하고 주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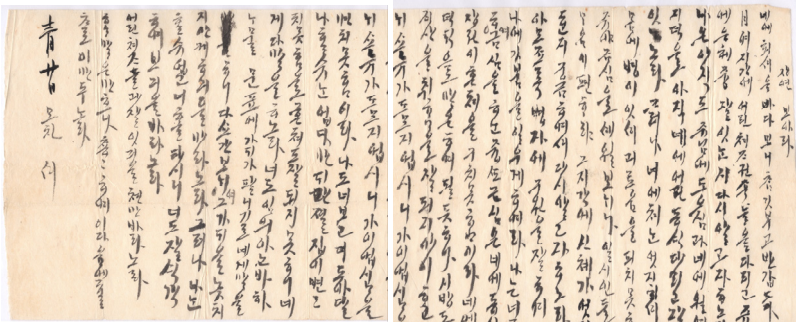
3. 편지들

여기에 제시된 한글 편지들은 미주 지역 이민사에서 한반도(당시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미주 지역으로 보내진 것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들이다. 따라서 이 자료들에는 초기 이민사의 다양한 애환들과 생활상이 깃들어 있다. 그 편린을 김장연 씨에게 보내진 <편지> 중에서 ‘어머님의 편지’, 막내 동생인 ‘김장권의 편지’, 사촌형인 ‘김성국’의 편지로 나누어 간략히 자료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현대역 및 주석을 덧붙이는 것으로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자 한다.

3.1. 어머니의 편지

〈편지〉 중에서 3A의 편지는 어머니가 김장연에게 보낸 글 중 가장 먼 것
 번 것이다. 수 만리 떨어진 곳에 있는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사는
 막내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다.

〈Ltr 3A〉



(1) 판독

장연보아라

네에. 회셔을 바다보니 춤깃부고 반갑도다

月여지간에 어린쳐즈 권속들을 다리고쥬

에은혜중잘잇는 지다시알고자흐노라

나은아직도쥬님에도오심과네에월염

지덕으로아직네에어린동싱다리고잘

잇노라그러나네에쳐논엇지히셔

몸에병이잇셔괴로움을피지못흐니

쥬야금심으로세월보되나일시인들

므옴에편흐라그지각에신체가엇더

흔지금금혀여셔다시알고자흐노라

아모쥬록병자에구원을잘혀

나에깃봄을일우게혀여라나는너로

혀여금심을흐는중쫘금심은네에동싱

장권이혼쳐을구치못함이라네에
 덕택으로만은하여될듯하니시방도
 지산을취함을잘되지아이하고
 너쇼뉴가도모지없시니가이업심을
 면치못함이라나도너보고더도아달
 나홀슈는없다만디관절집이변변
 치못함으로혼쳐도잘되지못하니네
 게다말을호노라너도임의아난바하
 누물문표에가다가팔니기로네게말을
 하니다쇼간보너여그가디을늦치
 지안케호기를바라노라그러나나는
 홀수업고너홀타시니너도잘싱각
 하여보기를바라노라
 어린쳐즈들과잘잇기를천만바라노라
 홀말을만호나충충하여이다음에홀
 초로이만두노라

十二月廿日모친서

(2) 주석

月여지간: 月餘之間. 즉 한달 남짓한 동안.

월염: 원념(遠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신상을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일.

너에쳐는엇지히셔 몸에병이잇서괴로움을피지못하니: 너의 처는 어찌서 몸에 병이 있어서 괴로움을 피하지 못하니.¹⁴⁾

14) <신한민보>의 다음 기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

▷ 신한민보 1915년 07월08일 3면 3단

김부인의 병세는 차도를 었음

삭도 통신을 거한즉 사빅스에 잇는 김장연씨의 부인은 불행이 신병을 었어 삭도병원에 들어와 회복하고 병근을 알아 치료한 후에 지금은 점, 차도가 잇다더라

이 편지가 1914년 12월 20일에 보내진 것이니 김장연 씨 부인의 병은 꽤 깊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금심 : 근심. 경기도 수원 지역의 방언으로 보인다.

그지각에 : ‘그 사이에’에 대한 수원 지역 방언.

쇼뉴 : 소유(所有). ‘소유’가 ‘쇼뉴’로 발음된 것은 두음법칙에 대한 부정 회귀 현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엽심 : 가엽음. ‘가엽음’은 ‘가이 없음’으로부터 발달한 단어임을 말해준다.

하늬물 : 한우물. 당시 경기도 시흥군 수암리 양상리에 있던 지명이다. 현재는 ‘대정(大井)’이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다. ‘한우물’은 ‘큰우물’이라는 뜻이다.

문표에 : 문표의. 다른 편지를 통해 김장권이 구매하고 싶은 집의 실제 주인이 김문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딕 : 가대(家垞). 집안의 대지. 택지(宅地).

(3) 현대어 번역

장연 보아라

너의 회서(回書)를 받아보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구나.

여러 달 동안 어린 처자, 권속(眷屬)들을 데리고 주(主)

의 은혜 중에 잘 있는지 다시 알고자 한다.

나는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과 너의 원념(遠念)

의 덕으로 아직 너의 어린 동생들 데리고 잘

있다. 그런데 너의 아내는 어찌해서

몸에 병이 있어서 괴로움을 피하지 못하니,

(나는) 주야로 근심하며 세월을 보내나 한 순간인들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 동안에 몸은 어떠

한지 궁금해서 다시 알고자 한다.

아무쪼록 병자를 잘 구원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여라. 나는 너 때문

에 근심을 하는 중에, 또(다른) 근심은 너의 동생

장권이 혼처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너의

덕택만으로도 될 듯하지만 지금도

재산을 얻는 것이 잘 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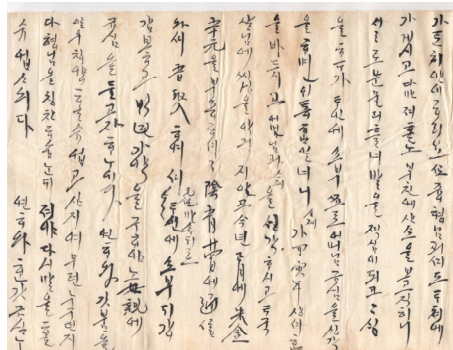
나 가진 것[소유(所有)]이 도무지 없으니 가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도 너보고 더 도와달
라고 할 수 없다만 도대체 집이 변변
하지 못해서 혼처도 잘 되지 못하니 너에
게 말을 하는 것이다. 너도 이미 아는 바 한우물
문표네 가대(家垓)가 팔리기로 너에게 말을
하니 다소간 보내어 그 가대를 놓치
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어찌할 수 없고 너 할 탓이니 너도 잘 생각
해 보기를 바란다.
어린 처자식들과 잘 있기를 천만번 바란다.
할 말은 많지만 바빠서[총총(惴惴)] 이 다음에 할
것으로 하고 이만 둔다.

2월 20일 모친 씬

3.2. 김장권의 편지

여기서는 김장연 씨의 막내동생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던 김장권 씨가 김장연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Ltr 6〉



[illegible]

수월하리라
 고저 정호는 마흔이 넘어서서
 고령 7월 예사날은 갓이 땅으로
 주정호는 고령으로 갈을 때에
 뽕나무의 잎이 하나나 그늘로
 예사날에 뽕나무 한 개를
 심는다고 하는 고령의 차려
 부엌 후미에서 제는 고령이라
 천공으로 만든 화살과
 무회 전정까지 부엌
 고령의 고령은 고령의
 고령의 고령은 고령의

此日... 乙卯年正月... 張氏...

[illegible]

(1) 판독

형쥬전상서

기체후일향만안호옵신지봉모구구호성지지와다
 슈식동안형쥬님과어린호희들도은혜중에안영호시
 며육신에상업에직미은얼마큼게시며또몇히
 동안상업에실쇼을당호섯시니되단히
 섭섭함을일후말을할슈업사옵고
 제은노어머님되시고무탈호외다금심치마시옵
 쇼셔.대쇼가되이다무고하오며교회가
 다안과호되다.연호와우리슴형제부모허락을
 타서장성호오나형님썩셔은슈말리트국에가
 계시니제는홍상소원이형님썩공경함이오또
 형님썩셔트국에가시자아바님썩셔도세상을이별
 호시고다만어머님한분만되시고잇시니엇지
 가튼치안이호리요또중형님썩셔도트쳐에
 가게시고다만저홀노부친에산쇼을보고직히니
 실로눈물리흘너발을적심이되고고싱
 을호드가트인에소부썩로어머님금심을싱각
 을호면이통함일너니스제가甲寅年상셔호(것)
 을바드시고어머님과스제를싱각호시고트국
 살님에씨심을악기지안코今年正月에米金
 五十元을부송호셔서陰五月廿四日에通信
 와셔五日取入호여셔兄任말씀되로트인에소부되강
 감보호고씩년가약을구호야노母親에
 금심을들고자호는이다.연호와갓봄을
 일우칭양할슈없고심지여무런누구던지
 다형님을칭찬호옵는되져야다시말을할
 슈업스외다연호와호갓금심는
 고격정호은다만이제는노어머님호분이요
 금년七月에어머님년갑이당호즉호갓

혼갑날이당혼즉그날잔을잡아어머님
 썩드릴스름이그것도금심이요
 세상에멋히동안안니게실어머님을
 싱신늘당혼야는과긋치차려드닐거시
 부족하니엇지스제는즈손이라
 칭히리요만은형님과형슈님과긋치다
 모혜질겹게히지못함이홍상원이
 읍고승각히면눈물리압흘가리움이외다
 엇지히면이골늘면히고요부흔숨늬에
 압제를엇지면홀논지요정신이아득히외다
 연히와스종형님은지금아라사지밍에가
 계시드고제게편지를히셋삼느이다
 연히와형슈님썩셔어머님썩머리다리를구히야
 붓치라히셋기에힘을다히야구흔즉
 一分은一즈반이요一分一즈츠지이상이기로
 안이붓치고다만합당히거스로드리고져
 흘분드러형슈님썩셔보늬신머리와근사히지
 안이히야이제긋지라도그와긋흔머리칼을
 구히느이다만이상셔을보시고회답
 히시면그동안구히야부송히겟쇼이다
 더딤잇심을용셔히시웁쇼셔
 흘말숨은무궁무진히오나눈물리
 압흘가리웁고이다음에말숨히라고
 이만두웁느이다

乙卯年五月三十日

장권

(2) 주석

형주: 형주(兄主): ‘형(兄)’을 정중히 이르는 말.

복모구구하성지지: 伏慕區區下誠之至. ‘보잘 것 없는 정성이나마 삼가 사모하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쓰는 편지글의 상투어.

안과흐너다: 안과(安過)합니다. 안과하다: 편안하게 탈 없이 지나가다. 또는 그렇게 지내다.

허육: 혈육(血肉). ‘친형제’를 가리키는 말.

소부: 소부(所負). 남에게 진 신세. 여기서는 ‘빚’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今年正月에米金 五十元을부송흐서서陰五月廿四日에通信와서五日取入흐여서: 금년(1915년) 정월에 50원을 부치셔서 음력 5월 24일에 통신이 와서 25일에 찾아서. 미국에서 돈을 부쳐서 당시 수원에서 돈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렸음을 말해주는 구절이다.

감보흐고: 감보(勘報)하고. 갠고.

칭양홀슈없고: 측량(測量)할 수 없고.

년갑: 환갑. 만 60세를 달리 이르는 말.

모혜: ‘모여’의 경기 지역 방언이다.

골논늘: 곤란(困難)을.

요부: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아울러 이르는 말.

숨늬에 압제을: 삼남의 압제를. 여기서 ‘숨늬(三南)’인지 ‘스름’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문맥상 ‘삼남(三南)’으로 봄. 일제 치하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문구이다.

스중형님: ‘중형(從兄)’인지 ‘중형(仲兄)’인지 분명하지 않음. ‘숨’는 뒤에 나오는 친척명칭을 높이는 말. 여기서는 문맥상 ‘둘째형님’을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아라사지망: 러시아 지망.

머리다리: 머리 가발.¹⁵⁾

15) 각주 14)에서 보인 <신한민보> 1915년 7월 13일 김심성 씨의 병세에 대한 기사와 Ltr 3A, 3B, 18, 26에서 김장연의 아내(며느리, 형수, 제수)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반복되고 Ltr 7, 8, 18, 32B 등에서 지속적으로 김장연의 아내(며느리, 형수)의 머리 다리를 구해 보내겠다는 이야기의 반복 등을 볼 때, 1914년~1916년경에 김장연의 아내인 김심성의 건강이 매우 악

乙卯年 : 여기서 乙卯년은 1915년을 가리킨다.

(3) 현대역

형님께 올립니다.

기체후일향만안(氣體候一向萬康)하옵신지 복모구구하성지(伏慕區區下誠之至)이옵니다.

여러 해 동안 형수님과 어린 아이들도 은혜 가운데에서 편안하시며 육신의 상업(常業)에 재미는 얼마만큼 있으시며 또 몇 해 동안 상업에 실수를 당하였으니 대단히 섭섭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사옵고
저는 늙으신 어머니님 모시고 무탈합니다. 근심치 마십시오. 큰집, 작은집이 다 무고하오며 교회가 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부모 혈육을 얻어서 장성(長成)하였으나 형님께서는 수만 리 타국에 가 계시니 저는 항상 소원이 형님께 공경하는 것이고 또 형님께서 타국에 가시자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고 다만 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있으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둘째 형님도 다른 곳에 가 계시고 다만 저 홀로 아버님의 산소를 보고 지키니 실로 눈물이 흘러 발을 적실 지경이 되고 고생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소부(所負) 조(條)로 어머니 근심을 생각하면 애통할 뿐이니 사제(舍弟)가 갑인년(甲寅年, 1914)에 글 올린(것)을 받으시고 어머니와 사제(舍弟)를 생각하시고 타국 살림에 쓰실 것을 아끼지 않고 금년(今年) 正月에 米金五十元을 부송(付送)하셔서 음력(陰曆) 5월(五月) 24일(廿四日)에 편지[通信]가 와서 五日만에 받아서[取入] 형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을 대강 감보(減保)하고 백년가약(百年佳約)을 구하여 늙으신 어머니께

화되어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심성은 1920년 졸.

근심을 덜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루 측량할 수 없고 심지어 무론(毋論) 누구든지
 다 형님을 칭찬하시는데 저야 다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낱 근심 나
 고 걱정하는 것은 다만 이제는 늙으신 어머니 한 분이요
 금년 칠월(七月)에 어머니 환갑이 되었는데 한갓
 환갑날이 되어도 그 날 잔을 잡아 어머니
 께 드릴 사람이 없으니 그것도 근심이고
 세상에 몇 해 동안 계시지 않을 어머니를
 생신날이 되어 남과 같이 차려드릴 것이
 부족하니 어찌 사제(舍弟)가 자식이라
 하겠습니까만은 형님과 형수님이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한(恨)이
 업고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웁니다.
 어찌하면 이 어려움을 면하고 요부한 습늬의
 압제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리고 종형님은 지금 러시아 지밍에 가
 계시다고 제게 편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께서 어머니께 머리 가발을 구해서
 부치라 하셨기에 힘을 다해 구했는데
 하나는 한 자 반이고 하나는 한자 반 조금 넘기 때문에
 부치지 않고 다만 함당한 것으로 드리고자
 할 뿐이며 형수님께서 보내신 머리카락과 비슷하지
 않아서 이제까지라도 그와 같은 머리카락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편지를 보시고 회답
 하시면 그동안 구하여 부쳐드리겠습니다.
 늑장을 부림을 용서하십시오.
 드릴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이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이만 두웁니다.

1915년 5월 30日

장권

3.3. 김성국의 편지

김성국 씨는 김장연 씨의 사촌형이다. 특히 김성국 씨는 김장연 씨가 처음 하와이로 이민을 떠날 때 함께 떠났다가 김장연 씨와 달리 조선으로 돌아온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914~1915년 동안 감리교 경기 지역 순행전도사로 활동한 김병권 씨도 마찬가지로이거니와 이와 달리 김장연 씨와 같이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촌 형제인 김순권 씨나 삼촌뻘의 김경함 씨 등이 있다.¹⁶⁾

〈Ltr 12〉



16) 김순권 씨나 김경함 씨 등에 대한 미주 지역 활동에 대해서도 <신한민보>의 기록들을 참조할 수 있다.

<신한민보> 1941년 10월 2일 2면 5단

구 김순권 씨 부인의 미주일 성묘

고 김순권 씨의 부인 노라씨는 그 망부의 서세후 간단업시 미주일 에버그린에 가서 성묘하고 꽃을 두고 또 그 망부 유언을 의지하여 김순권씨의 무덤과 그 숙부 김경함씨 무덤 압해 만흔돈을 들여 비석을 만들어 세웠다더라

(1) 판독

죽제장연보시옵

포와에서피차작별후로소식을드디못하여듯니장권
이썩디강드으되반갑기칭양옵사오나연호와
신양이티평하며혼술이군양고알고자하며죽형은성사조안
하니만항이이외다장원이가타항의가고공하다가금연에는나
에집으로인도하여친형제와갓치알고이씨니그리아시옵
자권이는자년에권고함오로장가도잘들고또한자년에형제
가친목호우리을일항지에서찬송안이호리읍씨나자년에
도아주는고사고타인의좌권이마은모양리네연이나장권이
도연근四十이오겸호와장가도못들어씨니지금의도직정
만이씨면장가와살임니으되모양이온니자나가잘쥬션하야
동싱의혼인과살임을도아주어야장형에직분이안인가탄인
도구제호는디친형친제간의야말할슈인나변국에이셔도
아주는거과누만리박게서찬조하는거설비피호면영광
과명혜가으더게드가아모조룩기피식각호와이사람
의권고호는말을제버리지마시옵건쇼위동기간의분직
을호야세간을너여도상우지탄이잇는니분슈로치면창원이을면
저성취호고창권이는쥬후에호여야오리당연호디창원이는타
항에유리한연고니지금나라도사임호고안니호기는자년에게잇
씨니기피식각호야남니형에돈도리를저버리지마시옵총총잠서

大正六年陽二月十四日죽형성국 서

(2) 주석

포와(布哇) : 하와이를 달리 이르는 말. Ltr1(김병권, 1915.5.20.)의 내용 중에 “종데 장연씨는 봉견호시오. 우리 형데간 서로 작별호 지가 어언간에 발서 十유여년이 되었스니 가위 무정세월이 약유파로다. 여보시오 우리 스랑호는 동싱이여. 큰섬 앞뱃에서 피츄간 죠약으로 잇슬 썩에 지닌 일을 암” 이 싱각호니 동싱에 음성과 얼굴을 디호 듯호 썩 이 몽중이느 싱시에

어느 썸 업스리오.”라 하였는데 여기서 ‘큰섬’은 하와이의 다른 이름인 ‘빅 아일랜드’를 우리말로 쓴 것이다. Ltr33C(김성식, 1916.5.28.)에서 “이곳 속은 본국의 도러온 후 직시 고향을 써나서 지금 슈원군 동탄면 신이 적촌의 유하는 중니요”이라 한 부분도 숙부인 김성식씨가 본국을 떠나있다가 돌아왔음을 가리키는 것을 볼 때, 김성국, 김병권, 김성식 등이 10여년 전에 하와이에서 김장연과 함께 일정한 계약으로 함께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살펴본 김장연씨의 이주 과정(1904년 이주)과 연결시켜 볼 때 서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U.S.Census 내용들의 불일치를 고려하더라도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김장연씨는 하와이로 이주하였다가 역시 이민 1세대인 최심성씨와 혼인하여 1905년 혹은 1906년 경에 미국 본토(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일련의 <신한민보> 기사들을 통하여 김순권, 김성학 씨 등이 함께 미주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할 수 있다.

신양: 신양(身恙). 몸의병.

혼술이: 혼술(渾率)이, 혼가(渾家)가. 온 가족이.

군양헝긔: 잘 지내는지.

성사: 성사(省事). ‘성사’는 본래 모시고 있는 어른의 안부를 물을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자신이 잘 있음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조안: 조안(粗安). 그럭저럭편안함.

만헝: 만행(萬幸). 참으로 다행한 일.

고궁: 고궁(雇工). 남의 집 머슴.

일헝지늉: 일향지내(一鄉之內). 한 고을 안.

자권이: 장권이. 원문의 ‘자권’은 김장연 씨의 막내동생인 ‘장권’을 잘못 쓴 것이다. 이 편지에는 특히 이러한 오타자가 많다.

탄인: ‘타인’의 잘못. 남.

상우지탄: 상우지탄(喪偶之嘆). 배우자를 잃은 슬픔. 여기서는 ‘동기간을 잃은 슬픔’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창원이: 장원이. 김장연 씨의 둘째 동생인 김장원 씨를 말한다. 김장원 씨는 나중에 김중권으로 개명하였다.

창권이: 장권이. 김장연 씨의 막내동생 김장권 씨를 말한다. 같은 편지 안

에서 동일 인물을 ‘자권, 창권’ 등으로 잘못 쓴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편지는 김성식 씨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구술 내용을 대필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임호고 : 살림하고. 여기서는 ‘결혼해서 살림을 나고’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식각하야 : ‘싱각하야’의 잘못. 생각하여.

남니형에돈도리를 : 남의 형이 된 도리를.

大正 : 일본 다이쇼 천황 시대(1912~1926)의 연호(年號)이다. 대정 6년은 1918년을 가리키는데, 이에 앞서 김장연 씨에게 보내지는 편지들에 날짜가 大正연간으로 기입되기 시작한 것은 1917년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한 전방위의 압제가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3) 현대역

족제(族弟) 장연 보시게

포와(布哇, 하와이)에서 피차 작별한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더니 장권

이에게서 대강 들으니 반갑기 그지없으나 하지만

건강은 좋은지 온 가족이 잘 지내는지 알고 싶고 족형(族兄)은 어른 모시고 있는 일이 그럭저럭 편안

하니 만행(萬幸)일세. 장원이가 타지에 가서 고공(雇工) 노릇을 하다가 금년에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친형제와 같이 알고 있으니 그리 아시게.

장권이는 자네의 권고 덕으로 장가도 잘 들고 또한 자네의 형제

가 친목한 의리를 한 고을 안에서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자네의

도와준 것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좌권(빛?)이 많은 모양이네. 그러나

장권이

도 나이가 근(近) 四十이고 겹하여 장가도 못 들었으니 지금에도 재정(財政)

만 있으면 장가와 살림을 이을 모양이니 자네가 잘 주선해서

동생의 혼인과 살림을 도와주어야 장형(長兄)의 직분이 아닌가. 타인(他人)

도 구제하는데 친형제간에야 말할 수 있나. 변방에 있어 도

와주는 것과 누만 리 밖에서 찬조하는 것을 비교하면 영광

과 명예가 어떠하겠던가. 아무쪼록 깊이 생각해서 이 사람

의 권고하는 말을 저버리지 마시게. 이른 바 동기간에 분재(分財)

를 해서 세간을 내었어도 상우지탄(喪偶之嘆)이 있으니 순서로 치면 창원을 먼저 성취(成娶)하고 창권이는 추후(追後)에 하여야 으레 당연한데 창원이는 다른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까닭이니 지금이라도 살림하고 아니 하고는 자네에게 있으니 깊이 생각하여서 남이 형이 된 도리를 저버리지 마시게. 바빠서[충충(惴惴)] 잠시 씀.

大正 六年(1918년) 陽曆 二月 十四日 족형(族兄) 성국 씀

5. 결론

이상에서 1900년대 초 하와이를 거쳐 미주 지역 서부 LA인근에 정착한 김장연 씨 일가의 일련의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처음 이 자료의 일부를 접한 것은 2012년 5월의 일이고 나머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것은 2012년 10월 이후의 일이다. 그후 개인적인 작업으로 30여통의 편지를 번역하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편지의 순서를 재조정 한 뒤 각각 따로 보관되어 있던 편지와 편지봉투의 짝을 맞추었고 나아가 이 편지의 등장인물인 김장연 씨와 김장권, 김중권, 김병권, 김순권, 김성식 씨 등과 김장연 씨의 아내인 최심성, 큰딸 김로스, 작은딸 김에바, 큰아들 김영, 작은아들 김에드워드 등의 관련 기록을 한국과 미국의 각 곳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2013~2014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김장연 씨 일가와 김순권, 김성식 씨 등의 미주 지역에서의 생활의 편린을 확인할 수 있었고 1914~1915년 당시 감리교 수원지역 감리교 순행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김병권 씨 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제시대 초기 1914년~1920년간 미주 지역으로 보내진 편지들을 통해서 이 당시 수원 지역 일대의 실제 지명과 다양한 언어 생활, 미주 지역 이민들과의 교류 내용 등을 알 수 있어서 20세기 초반의 중요한 한글 및 언어 자료가 확보되었다. 2015년 3월 한글박물관에서 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한글박물관 기증유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첫번째 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편지>를 포함한 김장권 씨 기증 유물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치밀한 연구 성과를 학계에 보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덕희, 『하와이 대한민국민회 100년사』, 연세대 출판부, 2013.
 웨인 패터슨 저,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들녘, 2002.
 백두현, 『현풍 광씨 인간 주해』, 태학사, 2003.
 백두현, 『한글 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2012.
 안형주, 『1902년 조선인 하와이 이민선을 타다』, 푸른역사, 2013.
 조항범, 『순천김씨 인간 주해』, 태학사, 1997.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연구』(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연구』(4~1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논문>

- 김무식,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자료의 국어학적 연구:주로 음운현상과 표기를 중심으로」, 『문학과언어』 제19집, 문학과언어학회, 1997, 1~28쪽.
 김일근, 「언간(諺簡)의 국문학상(國文學上) 고찰(考察):언간(諺簡)의 제학적(諸學的) 고찰(考察)의 일환(一環)으로」, 『국어국문학』 제58·59·60권, 국어국문학회, 1972, 57~82쪽.
 박재연, 「진주 유씨가 묘 출토 언간의 어휘론적 고찰」, 『동방학지』 14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231~270쪽.
 백낙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2006, 163~195쪽.
 백낙천, 「국어 생활사 자료로서의 언간의 특징」,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183~198쪽.
 백두현, 「진주 하씨묘 출토 <현풍 광씨 인간>판독문」, 『어문론총』 31, 한국문학언어학회, 1997, 19~88쪽.
 백두현, 「『현풍 광씨 인간』의 종합적 고찰」, 『어문론총』 36, 한국문학언어학회, 2002, 1~30쪽.
 이광호, 「언문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95~131쪽.
 허재영, 「한글 편지에 쓰인 어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글』 268호, 한글학회, 2005, 87~121쪽.
 허재영, 「한글 간찰[언간(諺簡)]에 대한 기초 연구:연구의 흐름과 간찰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13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05, 257~277쪽.
 황문환, 「조선시대 諺簡 資料의 연구 현황과 전망」, 『어문연구』 통권 제122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69~94쪽.
 황문환, 「조선시대 諺簡 資料의 현황과 특성」, 『2009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국어사학회, 2010, 73~131쪽.

Hangul letters from America in 1910~1920year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Kim, Yang-jin

Lee, Hee-young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Hangul letters which were written by Kim Chang Yeon's family and emphasize their values as precious materials for Korean language research. Kim's family in Korea sent letters to Kim Chang Yeon in America from 1914~1920, and these letters includes the life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generations and fill the missing part of Korean language in this period of time of Korea. Based on these letters which were sent from Suwon area, place names of Suwon area and cultural and linguistic connections between Koreans and Korean immigrants can be studied. These letters will be provided to those who studies Korean language as important Hangul written materials that shows many aspects of Korean language.

Besides, people's past in letters such as Kim Byung Kwon, Kim Sun Kwon, Kim Sung Sik, Choi Sim Sun(Kim Chang Yeon's wife), Kim Rose(Kim Chang Yeon's elder daughter, Kim Eva(Kim Chang Yeon's second daughter, Kim Young(Kim Chang Yeon's elder son), Kim Edward(Kim Chang Yeon's second son) was checked out in this paper. Finding out what Kim Byung Kwon's had done as a methodist missionary of Suwon area is a collateral outcome of this study.

[Key word] immigrant, Hangul letters, Hangul written material, Japanese rule, Place names in Suwon, Immigration history, *Konglipsinbo*, *Sinhanminbo*, methodist, missionary.

이 논문은 4월 30일 접수되어 6월 1일 1차 심사를 거쳐
6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필자 정보〉

성명: 김양진

소속: 경희대학교

메일: kimrj@khu.ac.kr

성명: 이회영

소속: 한성대학교

메일: corkey@naver.com